

7.10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총의석 248석 중 125석 선출)

자유민주당

45석(지역구) 18석(비례대표) 146석(총합, 기존 의석 포함) 48%(의석률)

공명당(연립내각 참여)

7석 6석 27석 10.9%

입헌민주당

10석 7석 39석 15.7%

일본유신회

4석 8석 21석 8.5%

일본공산당

1석 3석 11석 4.4%

국민민주당

2석 3석 10석 4.0%

레이와 신센구미

1석 2석 5석 2.0%

NHK당

0석 1석 2석 0.8%

사회민주당

0석 1석 1석 0.4%

참정당

0석 1석 1석 0.4%

무소속

5석 0석 12석 4.8%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

자민-공명 연립내각 압승, 입헌민주당 등 호헌파 야당 참패 및 자민-공명-유신-국민 개헌 4당 전 의석 2/3 획득

-개헌 논의에 속도 예상,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에서 4당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성공 여부는 미지수

-현재 군대 포기와 전쟁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 9조를 폐기하는 것은 어려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https://www.tokyo-np.co.jp/article/190853>

7.13

필리핀 외장 남시나해領有權 6年前의仲裁判断の重視を強調

필리핀의 마노로 외장은, 남시나해에서 중국의領有權의主張を全面的に否定した国際的な仲裁判断から6年となった12日、判断について「議論の余地はない最終的なものだ」とする声明を发表

し、新政権として仲裁判断を重視する姿勢を強調しました。

フィリピンは、南シナ海の領有権をめぐる中国の主張を全面的に否定する国際的な仲裁裁判の判断を2016年に勝ち取りましたが、域内で埋め立てなどを進める中国は判断を無効だとして受け入れていません。

仲裁判断の発表から6年となった12日、首都マニラの中国大使館前では数十人のデモ隊が集まり「南シナ海は私たちのものだ」などと書かれたプラカードを掲げて抗議しました。

今月1日に就任したばかりのフィリピンのマナロ外相は、この判断について「否定や反論、それに議論の余地はない最終的なものだ」としたうえで「弱体化させようとする試みや、法律、歴史、それに記憶から消し去ろうとする試みを断固として拒否する」とする声明を発表し、マルコス新政権として、仲裁判断を棚上げした前政権とは一線を画し、判断を重視する姿勢を強調しました。また、マナロ外相は声明発表後、日本の林外務大臣と電話会談し、仲裁判断にしたがって領有権争いの平和的解決を求めていくことを確認するなど、日本とも連携していく姿勢を鮮明にしました。

필리핀 외무 장관, 6년 전 남중국해 영토 권리에 대한 중재 판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

마나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장을 완전히 거부한 국제 중재 판정이 있는 지 6년 후인 수요일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을 "논쟁의 여지가 없고 최종적"이라고 부르며 중재 판정을 중요시하는 새 행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2016년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는 국제 중재 재판소 판결에서 승리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막 취임한 마나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부정, 반박, 논쟁의 여지도 없이 최종적이고 부인할 수 없다"며 "법과 역사, 기억에서 그것을 훼손하거나 지우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을 보류했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그는 판결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이 발표된 후 마나로 외무상은 하야시 일본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 판정에 따라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임을 확인하고 일본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713/k10013714571000.html?word_result=%E4%B8%AD%E5%9B%BD

7.21

ロシア軍と中国軍の艦艇 活発な動き 時間差で日本列島を周回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後、日本周辺でのロシア軍の艦艇の航行が相次いで明らかになっていきます。中でも注目を集めたのが、先月、中国軍の艦艇と時間差で行った日本列島を周回するような航行でした。

ロシア軍艦艇の動き

一連の航行の始まりは6月9日でした。

北海道の根室半島の南東、およそ170キロの太平洋でロシア海軍の駆逐艦とフリゲート艦、合わせて5隻が活動しているのを海上自衛隊が確認しました。

6日後の6月15日には、この5隻に、別の駆逐艦などを合わせた7隻が、襟裳岬の南東、およそ280キロの海域を南下しているのが確認されます。

7隻は翌16日には千葉県沖を航行し、さらに17日にかけて、伊豆諸島の須美寿島と鳥島の間を通

過。

そして、2日後の6月19日には、駆逐艦1隻とフリゲート艦1隻を除く5隻が、沖縄本島と宮古島の間を北西に進み、東シナ海に入ったのが確認されます。

5隻は、2日後の6月21日には、対馬海峡を通過して日本海に入り、結果的に、ロシア海軍の船団は艦艇を入れ替えながら10日余りをかけて、日本列島の周りを航行しました。

中国軍艦艇の動き

一方、中国軍の艦艇も、同じような時期に日本列島を周回するように航行しました。

6月12日から13日にかけて、ミサイル駆逐艦や情報収集艦など4隻が対馬海峡を北東に進み、日本海に入ったのが確認されます。

その後、4隻は2隻ずつ二手に分かれ、

▽ミサイル駆逐艦2隻が、6月16日から17日にかけて宗谷海峡を、

▽情報収集艦など2隻が、6月16日に津軽海峡を、

それぞれ東に向けて通過しました。

そして、6月19日には、情報収集艦を除く3隻が、宮城県沖およそ220キロの太平洋を南下しているのが確認されます。

3隻は、先に太平洋を南下していたロシア軍の艦艇と同じようなルートを通過して、6月21日に伊豆諸島の須美寿島と鳥島の間を通過。

そして、6月29日から30日にかけて、沖縄本島と宮古島の間を北西に進み、半月ほどをかけて日本列島を、ほぼ1周しました。

時間差で、それぞれ日本列島を周回するように航行したロシア軍と中国軍の艦艇。

海上自衛隊で司令官を務めた元海将の香田洋二さん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以降、インド太平洋地域をめぐる同調する姿勢を強める日本とアメリカに対し、中ロの連携や海軍力を誇示するねらいがあったと思う。こうした航行は今後、増える可能性がある」と話しています。

防衛省はそれぞれの航行の目的について情報収集と分析を進めています。

自衛隊基地に米軍無人機を配備 監視態勢強化へ

東シナ海などで活動を活発化させる中国を念頭に、警戒・監視態勢を強化するため、日米両政府は、アメリカ軍の無人機を自衛隊の基地に初めて配備する方針を決め、鹿児島県にある海上自衛隊鹿屋航空基地への配備計画が進められています。

配備される無人機は

配備が計画されているのは、アメリカ軍の無人偵察機「MQ9」で、全長はおよそ11メートル、航続距離は8500キロです。

過去にはアフガニスタンやイラクでの軍事作戦に投入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が、防衛省によりますと、今回、鹿屋基地に配備が計画されている無人機は、情報収集のための偵察型で武器は搭載しないとされています。

防衛省は7月以降、およそ2か月の準備期間を経て、無人機8機を1年間運用する計画だとしていて、準備作業にあたるアメリカ軍の関係者が20日に現地に入りました。

防衛省は、無人機の配備に伴って、アメリカ軍の関係者が最大でおよそ200人駐留し、市内のホテルに宿泊すると説明しています。

米軍の無人機配備 地元は

日米両政府は、ことし1月に行われた外務・防衛の閣僚協議、いわゆる「2プラス2」で海洋進出の動きを強める中国を念頭に両国の施設の共同使用を増やしていくことで一致。

鹿屋基地で現地調査を行ったうえで、ことし5月、地元の鹿屋市に対し、無人機を配備する意向を伝えました。

鹿屋市の中西市長は7月11日、安全保障上の観点などから「容認はやむをえない」として計画の受け入れを表明し、その後、住民への説明会を開いて受け入れを決めた経緯を説明しました。

鹿屋基地にアメリカ軍の部隊が長期間、駐留するのは過去に例がなく、住民からは事件や事故の発生といった市民生活への影響や、部隊駐留の長期化、それに施設の共同使用の拡大による“米軍基地化”などを懸念する声が出されました。

こうした中、鹿屋市は21日、配備の期間は1年で延長は行わないこと、国は事件や事故の未然防止に努め、発生した場合は国の責任で適切に対処すること、それに地域振興の取り組みに国が最大限協力することなどを定めた協定を九州防衛局と結びました。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일본 주변을 차례로 항해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JMSDF)는 홋카이도 네무로 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총 다섯 척의 러시아 해군 구축함과 프리깃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옛새 뒤인 6월 15일, 이 다섯 척의 배와 다른 구축함을 포함한 일곱 척의 배가 케이프 칼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해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 척의 배는 16일 지바현 해안을 항해한 후 17일 이즈제도의 스미수지마와 토리시마 사이를 지나갔다. 이틀 뒤인 6월 19일, 구축함 한 척과 프리깃 한 척을 제외한 다섯 척의 배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섬을 잇는 북서쪽으로 이동해 동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뒤인 6월 21일, 다섯 척의 배가 쓰시마 해협을 통해 일본해로 진입했고, 그 결과 러시아 해군 호송대는 배를 갈아타면서 일본 군도 주변을 항해하는 데 10일 이상을 보냈다.

한편 중국 군함도 동시에 일본 군도를 항해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사일 구축함과 정보 수집선을 포함한 네 척의 배가 쓰시마 해협을 통해 북동쪽으로 이동해 일본해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네 척의 함선이 두 척으로 나뉘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두 척의 미사일 구축함이 소야 해협을 통과했고, 6월 16일 두 척의 정보 수집 함선이 동쪽으로 향하는 쓰가루 해협을 통과했다. 그 후 6월 19일, 정보 수집선을 제외한 세 척의 선박이 미야기현 해안에서 약 22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척의 배는 지난 6월 21일 이즈 제도의 스미수지마와 토리시마 사이를 지나 이전에 태평양에서 남쪽으로 항해했던 러시아 선박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 지나갔다.

일본 해상 자위대 사령관을 지낸 카다 요지 전 제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동정의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에 중국-러시아 협력과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미군 드론을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가고시마현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이 진행 중이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721/k10013730261000.html>

7.24

中, 대만 흔들기→미사일→상륙" 日 예측한 침공 시나리오

지난 22일 일본 방위성은 2022년판 방위백서에 전쟁을 의미하는 '대만 유사(有事)' 상황을 처음 기재하는 등 중국의 군사 동향에 고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히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머리말에서 "대만을 둘러싸고 그 통일에 무력행사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만 위기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또 중·러 양국의 군사 제휴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백서 발표 당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대만 군사력 전년보다 두 배 기술

일본 방위백서 2022년 판은 대만의 분석을 내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자세히 소개했다.

① 중국은 훈련을 명목으로 연안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동시에 ‘인지전(認識戰)’을 통해 대만 민중을 패닉에 빠뜨린다. 이와 함께 해군 함정을 서태평양에 집결시켜 외국군의 개입을 저지한다.

② ‘연습에서 전쟁으로 전환’ 전략에 따라 로켓군과 공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전략지원부대는 대만군의 중요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에 들어간다.

③ 해상·항공에서 우위를 확보한 이후 강습상륙함과 수송 헬기 등을 동원 상륙작전을 감행해 외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 제압을 완료한다.

즉 선전선동을 통한 대만 여론 흔들기→미사일 선제 공격→대만 상륙 통한 제압이라는 3단계 전격전이다.

올해 백서는 대만해협을 다룬 ‘대만의 군사력과 중국·대만 군사 밸런스’를 70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다뤘다. 지난해 3페이지 분량의 두 배가 넘는다. 또 대만이 유사시 예비역과 민관 전시 동원을 총괄하는 ‘전민 방위 동원서’를 올 1월 설립했고, 중국은 유사시 전략지원부대가 사이버전이나 심리전을 펼칠 것이라는 등 ‘대만 유사’에 대한 기술이 처음 등장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균형에 대해 백서는 “전체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2년 대만의 국방비는 3676억 대만달러(16조1200억원)로 약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데 반해, 중국의 발표 국방비는 1조4504억 위안(281조3000억원)으로 대만의 17배에 이른다. 중국은 대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만으로서는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부족하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중·러 유엔 안보리이사국이 침략행위 용인”

백서는 중·러의 군사 협력을 별도 박스를 통해 설명했다. 여기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타국 침략행위, 즉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서로 용인하는 관계를 초래할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5월 통산 네 번째인 중·러(전략 핵) 폭격기의 연합 비행이 도쿄에서 미·일·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일에 동해와 동중국해 및 태평양에서 실시됐다”며 “중·러 연합 군사 활동이 당초 유라시아에서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주안점으로 하던 데서 벗어나 유라시아 바깥의 해상에서 미·유럽·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중·러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널리 어필하는 것으로 확대·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중국이 제창하는 ‘지능화 전쟁’도 주목했다. 이른바 ‘지능화 전쟁’은 “사물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근거해 지능화된 무기와 장비, 작전방법을 이용해 육지·바다·공중·우주·전자·사이버 및 인지 영역에서 전개되는 일체화된 전쟁”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대만 국방보고서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세 개의 전쟁(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전개하거나 가짜 정보를 살포해 일반 시민의 심리를 조작·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인지전’을 우려했다. 백서는 ‘인지 영역’에서의 전쟁은 이미 가시화·진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환구시보 “중국과 한국 각각 불만 표해”

중국은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王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본 신판 ‘방위백서’는 중국 국방정책을 먹칠하고, 대만 문제에서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백서는 연말 전까지 방위문건을 수정해 방위예산을 더욱 증액하고, 이른바 ‘반격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기재했다”며 “평화주의와 전수방위의 길을 버리고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수주의 매체 환구시보는 23일 “중국과 한국, ‘일본 방위 백서’ 반박” 기사를 싣고 “한국과 일본의 분쟁 도서(한국명 ‘독도’, 일본명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견지했다”며 “중국과 한국이 당일 각각 불만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1797>